

七九六李達慶氏 논에서 지난三月下旬石塔材가發見되었다. 그中一部는 既히 露出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今般 그 全貌가 들어나게 되었다. 이 消息을 接하여 慶州博物館에서 三月二十九日 現場調査가 이루어졌고 三山調査團에 依하여 確認되었다. 이 塔材들은 圖面에서와 같이 南北線 上에 놓여 있었고 이 線을 따라 整理前에는 灌水路가 있었다고 한다. 이 번에 露出된 塔材는 總 八個로 基壇 甲石, 塔身, 屋蓋石 등이 包含되어 있었으나 復原은 不可能하다. 이 塔材들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.

- (A) 屋蓋石..반침 四段의 屋蓋石
반침高 一八·五 cm 屋蓋高 三五 cm 最下端幅 五三·八 cm
- (B) 屋蓋石..반침高 二四 cm 屋蓋高 三三 cm 最下端幅 六五 cm 最上段 幅 五四 cm
- (C) 屋蓋石..二枚構成的 한쪽뿐이다.
추너幅 一五二 cm 最上端幅 七〇 cm 이 三個의 屋蓋石은 三層을 이루었던 것 같다.
- (D) 塔身..高 四〇 cm 幅 八一·五 cm 隅柱幅 一五 cm

- (E) 基壇甲石..
 - (F) 屋蓋石..前記 屋蓋石과의 別途의 것이다. 高三五 cm
 - (G) 用途不明石材..七三×九四×二八 cm
 - (H) 基壇甲石..四枚構成中 一石이다. 一一五×一一一 cm
- 以上의 塔材로 보아 二基의 石塔이 있었던 것을 알겠고 그中 一塔은 三層塔으로 推定되었다. (圖面은 慶州博物館長 朴日蕙氏가 作成한 것이 며 實測도 同氏의 報文에 依하였다)

〔附 記〕 이 塔材가 發見된 後 現場은 保存되어 있으며 三山調査團의 現地踏查時에는 H石 北方 約 10m 地點에 石燈蓋 石 一枚가 露出되어 있었다.

晉陽郡 大坪面 大坪里(한들) 先史時代의 遺蹟과 遺物

金 相 朝

大坪里「한들」은 晉州市內에서 山淸、咸陽、居昌方面으로 通하는 國道를 北進하기 約 十二 km를 달리면 晉陽郡 鳴石面「네거리」마을(舊支署 所在地) 國民學校앞에 이른다. 이곳에서 西편으로 僻은 길을 擇해 約 四 km달리면 市場이 나오고 바로 이곳이 石劍이 나온 곳이다.

이곳 地形은 左靑龍 右白虎가 南쪽으로 휘감아 제법 아늑한 고장으로 西쪽 山 밑으로는 山淸 鏡湖江과 梁川江 그리고 南砂川의 큰 江물이 合水되어 흘러 南江으로 進入하는 全國에서도 水源 좋은 곳이다.

南쪽에는 東에서 西로 連結되어 北上하여 近年에 築造된 防水堤가 있 으니 이것이 바로 南江댐工事로 因한 溜水에서 이 肥沃한 들판을 살리 기 爲해 一九六七年에 이룩한 防水堤인 것이다.

이 防水堤工事에 많은 支石墓가 破壞되었으며 이곳에서 石劍 石槍 石 刀 石鏃 管玉 丹塗항아리 등이 無數히 出土된 바 있었다.

二

遺物出土地點附近은 耕地整理事業이 한창이며 東쪽 山麓이 큰 마을이
고 西南쪽이 流砂 堆積層위에 오래되지 않은 듯한 마을이 形成되어 있고
南北으로 길게 뻗은 들판이 比較的 넓고 긴 平野를 이루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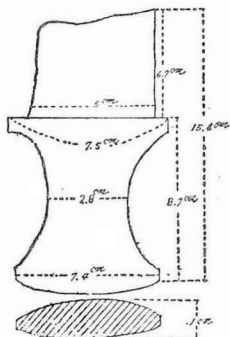
이곳에서 北쪽 一五〇m許부터 南方式 支石墓 七基를 無秩序하게 볼
수 있고 南쪽으로 一五〇m許에 三基를 整然하게 볼 수 있다. 이곳이
原來 들판에서 流域의 變動으로 한때는 이곳으로 물이 흘러 많은 모래
를 堆積시키고 다시 本流域이었던 西山下로 흘러간 흔적이 歷然하니 支
石墓가 거기 파묻혀 農耕으로 因해 겨우 掌石이 들어나 있다.

發見經緯를 들으면 排水路堤防을 모으기 爲한 盛土作業中 地下 一m
許에서 作業이 順調로왔던 完全砂質土에서 板石이 삼팔에 걸쳐 일어나
게 되었다. 人夫가 異常하게 여겨 塗土를 넓게해보니 五枚의 板石을 들
어낼 수 있었고 長方形 石箱이 나타났다. 壙中の 砂土를 除土하던中 圖
版一과 같이 石劍 斷片 一片이 發見되었고 다른 副葬品은 없었다고 한
다.

한편 石箱墓의 規模는 넓이 約 六五cm 길이 約 六〇cm 깊이 約 二m
였으며 使用한 板石은 比較的 均一한 方形粘板岩으로 五〇cm X 六〇—七
〇cm 두께 五cm—六cm의 石材였다.

三

이런 일이 있은지 數個月이 지난 一九六七年 二月 釜山에서 口緣部가
若干이 가 빠졌을 뿐 完形 그대로 丹塗
빛이 찬란한 紅陶 一點과 부러지기는 했
으나 심세하게 다듬어진 石刀 一點을 調
査할 수 있었다. (圖二)이 遺物의 出土
地點은 前記 石箱墓에서 約 二〇m 距離
이며 墓의 築造方法이나 規模도 前記墓
와 類似하였다고 한다.



圖版 1 第一號石箱墓出土石劍

考古美術 뉴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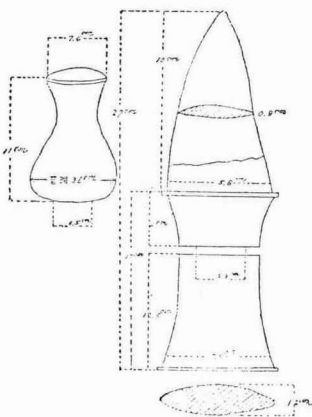
◎ 新羅三山學術調查團發足

한국일보社에서는 年初에 今年度 事業計劃으로 新羅三山의 學術調査를 實施할
것을 社告한 바 있으며 이어 지난 三月 二十二日에는 七名의 調査委員을 委囑하
고 調査事業計劃을 發表한 바 있다. (三月 二十二日 한국일보記事 參照)

여기에 依하면 이 新羅三山學術調査事業은 앞으로 三個年의 期間을 設定하고
地表調査를 主로 하여 아직 밝혀지 못한 新羅時代의 三山을 찾아 그곳의 學術調
査를 目的으로 하고 있다.

한편 調査團은 지난 四月 八日 下午에 첫 모임을 갖고 正式으로 發足함과 同
時에 앞으로의 調査計劃을 論議한 바 있다. 委員名單은 다음과 같다. (가나다順)

- 團長 金祥基(博士·文化財委員長)
- 委員 金英夏(慶北大博物館長)
- 李基白(西江大教授)
- 鄭永鎬(檀國大博物館長)
- 秦弘燮(梨花大博物館長)
- 洪思俊(文化財專門委員)
- 黃壽永(東國大博物館長)



圖版 2 第二號石箱墓出土紅陶 및 石劍